

“화천장날엔 안끓는다”

강원도 화천의 5일 장터. 새해 첫 장이 열린 3일 오전 10시 옛 문화원 강당은 앞치마를 두르고 팔을 걷어붙인 비구니스님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신년연휴에도 자원봉사자로 나선 보살들은 구수한 재담을 섞이면서 능숙한 솜씨로 국수를 삶고 반찬을 척척 만들어 낸다. 스님들은 문화원입구를 말끔히 청소하고 시장쪽을 바라보며 노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화천군불교연합회(회장 해은·금강사주지)가 실시하는 ‘장날마다 노인들을 위한 무료점심공양’에 나온 자원봉사자들은 “재해에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맛깔나는 공양을 대접하자”며 새로운 다짐을 한다.

화천군불교연합회의 ‘장날 노

화천불교련 1년째 노인 무료공양 주민들도 쌀·김치·석유등 내놔

인들을 위한 무료점심공양’ 현장을 이다.

산골노인들엔 겨울이 유난히 춥고 길다. 자식들은 도회지로 떠났고, 허탈함이 배가되는 계절이다. 특히 화천은 휴전선 접경지역이어서 실형민들이 많다. 이들의 그리움은 더욱 진하다. 때문에 산골노인들엔 장날 시장구경이 유일한 외출이자 즐거움. 그러나 문제는 점심공양. 쌀짓돈을 털어 버스요금만 마련한 노인들은 이웃집 젊은이를 만나지 못하면 점심공양을 거르기 일쑤다. 음식점

을 지날 때마다 주머니속의 동전을 세어 보지만 점심 한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 노인들은 굶주림으로 굶은 허리를 더 굶혀가며 시장구경을 하다 파장이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불과 1년전 화천장날 노인들의 모습이였다.

노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장날이 ‘끓는 날’로 전락된 것. 이같은 사정을 안타깝게 여겨 오던 화천군불교연합회는 97년 12월부터 장터 구경을 나온 노인들을 위해 무료점심공양을 시작했다. 화천군청의 협조로 폐쇄된

문화원을 무료로 임대 받았고 금강사 금용사 약수암 금호사 등 5개 사찰이 심시일반으로 음식을 준비했다.

사찰이 시주만 받기 보다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우선 장날 시장을 찾은 노인들을 돕기로 한 것. 장날 노인 무료공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지역민들의 온정도 잇따르고 있다.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 산나물값을 짝는 아주머니, 심지어 몇몇 노인들까지도 선뜻 주머니를 털어 쌀 국수 몇치 김치 양념 가스 석유 등을 내놓는다. 이들의 작은 정성이 화천군내 노인들에겐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다. 시계바늘이 정오를 지나면서부



◇ 화천장날마다 열리는 노인무료공양 행사. 매년 2백여명이 모여 식사를 하며 정담을 나누는 따뜻한 만남의 장이다.

터 문화원을 찾는 노인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30여분도 안돼 문화원은 노인들로 가득 매웠다. 정감있는 노인식당으로 변한 것. 화천 해은스님은 “사찰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시작할 때는 박찬 일이라 여겨지기도 했지만 1~2회 지나면서 자리를 잡을수 있었다”며 “어려운 가정경제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내주신 군민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등 다시 장터로 나서는 노인들과 스님들의 모습에서 산골 장날의 훈훈한 기운이 피어 올랐다. 회장 해은스님은 “사찰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시작할 때는 박찬 일이라 여겨지기도 했지만 1~2회 지나면서 자리를 잡을수 있었다”며 “어려운 가정경제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내주신 군민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뉴스 & 뉴스

군법당위원·수계법회

조계종 서부경남포교사회(회장 이호경)는 구립 27, 28일 각각 삼천포 인근 군법당인 백호정사와 용호정사에서 송년위원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계사 성각스님을 비롯 포교사회원과 군장병 등 5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두 군법당과 서부경남포교사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군장병들의 범죄예방과 불법종교에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네팔 의료자원봉사자 모집

가족아카데미(회장 이근우박사, 이대병원)는 제1회 네팔 의료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가족아카데미내 팔봉사단은 2월1일부터 11일까지 네팔에서 의료봉사 및 비타민회원이 기존 한 성원으로 구입한 약품을 제공하고 폭넓은 가족봉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봉사일정 동안 모두 6회에 걸쳐 역동적인 미디어연선에 관한 학습도 하게 되며, 네팔 성지 순례와 중요한 사 1백명을 초청한 친선 리셉션도 갖는다. (02)760-138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대전 비룡산악회 창립

대전 비룡산악회(회장 이재상)는 10일 창립법회 및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순천시회장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순천시회장은 비룡산악회 이재상회장에 임명장과 회기를 수여했다. 김원우 기자(wkim@buddhapia.com)

연꽃마을에 위문품 전달

금강메아리산악회(회장 윤부운)는 구립 30일 노인복지시설인 연꽃마을을 방문하고 쌀 5가마 등 부식일체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해명법사와 윤부운회장 성종욱부회장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향지모임, 5사단 위문

연천 향지모임(회장 양춘연)은 10일 5사단을 방문하고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와함께 연말연시를 맞아 의정부 안국사 학생들을 위로방문하고 소년소녀가장 25명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향지모임은 이예앞서 불우청소년과 군장병 위문을 위한 일일차집을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훈활머니 외손녀 대학간다

훈활머니 외손녀 잔니양(19)이 오는 3월 영남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입학한다. 잔니양은 훈활머니돕기 불교후원회(잔니양 강인성·최봉태)등의 주선으로 영남대학교에 특별입학해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명은 물론 사회과학에 대해 배우게 됐다.

한편 캠프다이에 머무르고 있는 훈활머니는 잔니양의 입학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3월초 귀국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이웃을 돕는 사람들 ‘제2 아침을 여는집’ 15일 성북동에 연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산하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동훈)이 서울 성북동에 노숙자 숙소를 위한 ‘제2 아침을 여는 집’을 운영하게 됐다. 그간 주민들의 반대로 장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구립 30일 주민들과 최종 합의함으로써 오는 15일부터 노숙자 숙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성북구청 뒤 성균관빌딩에 마련된 이 숙소는 60여명 규모로 방과 목욕탕 부엌 등을 갖추고 있으며, 30여명의 노숙자들에게 잠자리와 급식을 제공하게 된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에 노숙자 숙소 지원금(1억여원)을 신청한 24개 단체가 유일하게 지원단체로 선정됐으나, 남부현상에 부딪혀 그동안 장소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전문포교사 팀장회의 조계종 포교사단, 16일

조계종포교사단은 16일 오후5시부터 대전중앙불교회관에서 전국 29개 전문포교사팀장회의를 열고 새해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포교사단은 지

난 해부터 실시된 포교사 전문화 사업을 평가하고, 팀 구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또 3월 새로 품승반은 포교사의 전문분야별 배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포교사단은 지난 해 6월 포교사전문화를 위한 워크숍을 두 차례 열어 군, 청소년, 어린이, 교도소, 경찰서, 장의염병 등의 분야에 29개 전문포교사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추락경찰 돕기 모금 전국교사불자연합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가 구립 23일 정화회의 총무원 청사 퇴거 집행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경찰들에게 적극 나섰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서울 경기 인천지부 임원단 10여명은 6일 서울대병원과 국립경찰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권병주 신재경 김민영 임낙규 황상만 경장을 차례로 방문하고, 즉석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권병주 경장을 돕기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국민은행 023-21-0780-927 예금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임원숙

도필선 기자

“불교민은 까닭 마음안정” 60% 월간 여성불교, ‘여성불자 의식’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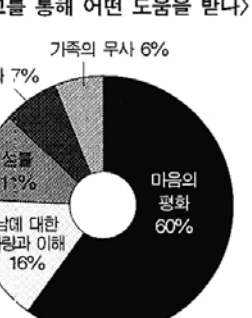
여성불자 대부분이 불교를 신앙하는 목적과 불교가 가장 도움을 주는 부분을 ‘마음 다스리기’라고 밝혀, 여성 불교=기복불교라는 등식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도선사에서 발간하는 월간(여성불교)가 창간 21주년을 기념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시내 6개 사찰 총416명의 여성불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성불자의식’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다.

불교를 신앙하는 목적에 대한 물음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 불교를 믿는다는 대답이 36%로 가장 많았다. 불교가 자신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마음의 평화(60%), 남에 대한 사랑과 이해(16%),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11%), 가족의 무사(6%) 순으로 응답했다. 불교발전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로 25%가 포교활동을, 24%가 사회봉사활동이라고 답해 여성불자들이 포교나 사회봉사활동을 자신들의 몫이라고 믿는 능동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나타났다.

설문응답자 가운데 43%가 불교를 믿게 된 계기를 자라온

〈불교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나〉



환경 때문이라고 답했고, 시댁의 종교를 따라 불교를 믿게 된 것이 16%, 10.4%가 친구의 영향으로 불교를 믿게 된 것으로 나타나 가정내에서의 종교적 분위기가 개인이 한 종교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불교가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는 질문에 90.6%의 응답자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행복함을 묻는 질문에는 76%가 행복하다고 답했다. 불교와 무속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41%가 아무 상관 없다고 대답했고, 철학관이나 무당을 찾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48.7%가 절에 다녀 후부터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eilee@buddhapia.com)

범불교재가연대 순회토론회

부산·대구·대전·광주順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가 8일 부산 금정불교회관에서 열린 부산지역 토론회를 필두로 '98년 조계종 분구 원인과 해결 방안' 지속적 개혁을 위한 과제 '재가불자들의 책임과 역할' 등을 되짚어보는 제1차 지역 순회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은자 기자

재가연대는 9일에는 대구 보현사에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16일에는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23일에는 광주 향림사에서 순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재가연대는 토론회와 함께 폭력적 퇴출과 사찰재정 투명화를 위한 서명운동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순회 토론회는 순천시회장에 임명장과 회기를 수여했다. 김원우 기자(wkim@buddhapia.com)

중신회 2월중 새회장 선출

조계종 중앙신도회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가 2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한곤 공동회장직무대행은 4일 "3월 중순이 송재전 진회장의 임기가 끝나므로, 이에 맞춰 새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라며 "2월 중 대의원대회 소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총무원 새집행부 출범에 따라 신년인사의 형식을 빌려 총무원과 새 회장 후보, 대의원총회의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토록 돼있다. 회장은 신형경 10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신도에게 수직이어야 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해 2월 송재전 당시 회장의 돌연한 사퇴로 1년 가까이 회장 공석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회장직무 대행 적법성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기도 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사사태 구속자석방 대책위, 청와대등 탄원

12·23 조계사 사태 구속자석방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지원 효종스님)는 6일 청와대와 비례해 박상천 법무부장관, 김태정 검찰총장, 구속자 담당 검사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구속자석방대책위원회는 김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부처

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들이 참회하고 반성하면 이들에게는 ‘용서’라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며 12·23 조계사 사태로 인한 구속자들의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구속자석방대책위는 7일 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발표한 ‘불구속사정 검찰청장, 구속자 담당 검사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구속자석방대책위원회는 김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부처

도필선 기자

사찰 쓰레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적은 매연, 완전연소로 소각하십시오.

대용 하향식 소각로

대용 하향식 연소방법 소각로란?

- 1) 과학적 설계로 제작된 상부에서 하부로 연소되므로 동시에 많은 양을 투입하고 소각하여도 오나전 연소되어 매연이 적다.
- 2) 밀폐된 상태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화재나 안전사고가 없다.
- 3) 연소중 관리가 필요없고 이동이 용이하다.
- 4) 소각로의 재질이 스텐레스(SUS) 316(표준형)으로 제작되어 영구적이다. (특별 재질 주문 제작 가능. SUS 309, 310, 304, STEEL)
- 5) 특히 산야등 산불의 위험이 있는 관광사찰

※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원중 ※

모델명	재질	금액
DY-1	SUS316	₩1,250,000
DY-2	SUS316	₩ 850,000

주문형

제조원: **대용 엔지니어링**
서울 강서구 공항동 664-13

판매·문의: (02)3673-2680 / 745-8503(실상선원)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향)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항비를 신원향(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족화합물의 성분이 신원향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항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향(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흐름, 침의 흐름,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번하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배꼽이 고통스럽다
- 11 배나 복부 근력이 많이 떨어진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짝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노나 감당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7기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